
2022년 제1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회의록

2022. 9.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청탁금지법 준수사항 안내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 해당하여, 미술작품심의 위원들은 심의와 관련된 신청자 또는 이해당사자와 개별접촉(전화, 대면 등)의 회피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방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청탁을 위한 접촉을 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회 회의 시 공표하도록 하고, 심의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술작품심의의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 향응,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청탁성 전화 및 문자 등의 사례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 시 이를 공표하고 심의에 반영함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2호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2022년 제1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

<회의개요>

- ◆ 일 시: 2022. 9. 15.(목), 14:00~15:40
- ◆ 장 소: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 참 석: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 ◆ 안 건: 일반안건 7건 12작품 (조각 8, 회화1, 미디어2, 기타1)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안건별 사전검토 의견서 보고 후 위원님별로 평가표에 따라 가/부/조건부승인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별 작품별 가/부/조건부승인을 종합,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일 경우 승인 결정을 하고, 미승인 작품의 경우 공개토론 후 위원별 가/부/조건부승인을 재결정 한 후 최종 승인 결정을 합니다. 1번 안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안건>

1-1. Blue life

<긍정적 의견>

-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작품보다 개선됨
- 본인 작품의 개성을 살려 공간을 해석한 조형이 돋보임
- 심플한 추상적 형태와 주제를 잘 살린 색상으로 공간과 조화로움
- 정적인 형태에 동적인 요소를 담고 있음
- 유선형의 형태가 야외 공간에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며, 야경에서의 색다른 시각 효과가 기대됨
- 공간과 무난하게 어울림, 야간에는 타공기법으로 인한 작가만의 패턴 조명이 입주민으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됨
- 주변 공간에 적합한 작품이며, 풍부한 양감과 조형적 형태로 안정성이 돋보이는 작품
- 전작보다 세련된 구성
- 푸른 물방울의 느낌을 새롭게 제시함

- 물방울의 모던한 조형성과 조명을 활용한 타공기법이 무난한 형식이라고 보여짐
- 물방울의 덩어리 안에 원 형태들의 조합에서 오는 무게감이 주변 건축물과 무난함
- 전작과 비교해볼 때 조형적으로 무난한 연출을 보여줌
- 유연한 형태의 공공미술로서 환경과 무난하게 조화되어 보임

<부정적 의견>

- 진부한 표현 양식으로 익숙한 구성요소임
- 진부한 형태와 표현으로 주변 공간에 예술적 감흥을 주지 못하는 작품임
- 흔한 컨셉과 평이한 조형성이 아쉬움
- 내, 외부 형태 개연성 부족으로 인한 흥미 감소
- 조형의 원리가 단순함
- 형태가 다수 진부하고 흔히 볼 수 있는 타공기법과 led 조명이 식상함
- 특별한 의미가 없는 작품으로 판단되며 공간을 고려하고 관람객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좋겠음
- 현재 계획된 작품 내부 하단의 조명만으로는 도서에 표현된 야경 효과를 연출할 수 없음
- 무난해 보이거나 어디서 본 듯한 이미지

<기타 의견>

- 타공 부분의 보존과 안전의 고려가 필요함

1-2. The wave(자연의 흐름)

<긍정적 의견>

- 이전 작품보다 긍정적으로 보완됨
- 생명의 에너지가 느껴짐
- 곡선적 구성을 통한 조형물에서 오는 부드러움과 율동감이 주변 건축물과 무난함
- 조형적 요소와 상징적 요소가 잘 배합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 친화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킴
-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며, 공공 미술작품으로 적합한 작품

<부정적 의견>

- 작품의 형태와 느낌이 매우 인위적이고 장식적으로 보임, 작가의 기존 설치작

품이 유사하게 반복 재생된 형태

- 웨이브의 공간적인 비율이 다소 불균형하여 시각적으로 무거움
- 진부한 형태와 표현으로 주변 공간에 예술적 감흥을 주지 못하는 작품
- 야간조명에 신경 쓴 듯해 보이는데 의미없어 보인느 타공된 공간에서의 빛이 아름답다거나 좋아 보일지 의문이 듦
- 진부한 형식의 추상 조형 작품
- 예술적 가치를 도출하기 힘든 조형성
- 작품의 구성이 답답한 느낌을 줌
- 자연의 흐름이라는 제목에 비해 조형적으로 다소 인위적임
- 자연의 흐름이라고 하기에 지나치게 인공적인 스틸이 강조되었으며, 조각의 특수성으로도 볼 수 있지만, 개인적 견해로 건물과 조각의 조형성 및 색감이 부조화스러움
- 식상한 무브먼트로 조형성이 미흡함
- 공간의 범위에 적합한 크기의 조형물인지 안전의 기준으로 재검토 요망
- 작가의 기존 작품과 유사한 형태이며, 본 형태에서 비례상 높이가 낮아 보이며, 녹색과 금속 자체가 단조로워 보임
- 이미 설치되었던 공고미술 작품과 유사한 형태와 표현기법으로 독창성 미흡
- 기존 설치작품과의 차별성이 전혀 없으며 건축공간과의 이해도와 상징성이 결여됨, 조형물의 색상이 건축물과 조화롭지 못함
- 자연의 흐름이라고 하나 표현이나 조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형태와 색상이 변화 없이 반복되는 다소 지루한 느낌의 조형으로 미감을 주지 않음
- 조형적으로 새롭지 않음

2. 아침의 시(詩)-stare

<긍정적 의견>

- 현대도시에 걸맞는 작품으로 무리 없어 보임, 여러 각도에서의 조형미를 고려한 형태임, 작가의 작품세계가 잘 표현된 조형물
- 인체를 주제로 색의 구성이 흥미로움
- 사람+人的 느낌인 조형물로서 웅장함과 진취적인 행보를 느끼게 함
- 기존 작가의 작품세계가 잘 표현된 작품, 설치 공간과 조화를 이룬 공공미술 작품
- 인체 조각을 통한 심도 있는 시각 연구
- 동시대성을 드러낸 인체상
- 인체 조각의 조형적 특성을 잘 구현함
- 흑과 백의 대비를 통해 동시대의 사회문화상을 은유화한 의미 있는 작품으로

강렬한 인상을 전할 수 있는 작품으로 강렬한 인상을 전할 수 있는 상징성이 기대됨, 건축공간을 잘 해석한 작품

- 건축공간을 잘 해석한 강렬한 메시지의 조형성이 기대되는 작품
- 작가 고유의 작품세계가 잘 담겨 있고, 건축물 조경공간과 함께 잘 어우러진 작품, 대중적 호감을 유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기대됨

<부정적 의견>

- 형태나 색상의 표현이 직설적이며 작품 규모 또한 커서 시각적인 부담감이 느껴짐
- 공간과의 부조화
- 흑백의 대비가 보는 이에게 시각적으로 부담을 줌
- 진부한 형태와 표현으로 주변 공간에 예술적 감흥을 주지 못하는 작품임
- 공공미술에는 부담스러워 보이는 작품
- 규모에 비해 작품가 과다 측정
- 조각 자체의 조형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공간과의 조화 측면에서 왜 흑과 백의 극단적인 대비의 벌거벗은 남자상이 광장에 배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공감하기 어려움
- 시각적인 관심도는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작품의 의도가 잘 이해되지 않음
- 작가의 조형미가 부족해 보임, 기존작품에 인물 형상을 이용해 보이는데, 이번 조형물은 마치 마네킹을 캐스팅한 것 같은 연출인 거 같아 아쉬움
- 어둠에서 깨어나 빛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밝음의 두 개로 나뉜 인체의 형상으로만 느껴짐. 작가의 의도대로 밤에서 낮, 과거에서 현재, 혼돈에서 질서의 변화를 이동하는 느낌을 더 확실하게 표현해야 함

<기타 의견>

- 작품이 위치할 장소(성큰)의 규모와 작품의 스케일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함

3. WALDEN

<긍정적 의견>

- 전 작품에 비해서 풍성한 조형미가 연출되었다고 판단됨. 공간을 자연과 유기적 관계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관람객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작가의 기존 작품의 정체성이 잘 반영된 조형물로 보여짐
- 심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풍성한 조형미를 부각했으며, 작가의 개성과 작품의 컨셉을 잘 표현하였음
- 작품 수정 후 역동성을 통한 조형미가 보임

- 외부 환경에 잘 어울림
- 주거공간에 무난히 어울리는 작품
- 작품 보안을 통하여 작품 외부와 내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주제 의식과 조형성이 풍부해짐
- 그물망으로 연결된 유기적 구조가 자연순환의 부분임을 인지시키며, 디테일한 면이 보여주는 조형적 감성이 뛰어남
- 부결 사유가 개선됨
- 기존의 공간과의 부조화적인 측면을 보완한 작품으로 긍정적임
- 이전보다 시각적으로 새로움
- 시원한 조형적 특성이 공간과의 조화를 이룸
- 해의 움직임에 따라 파고라와 같은 역학의 기능성도 엿보이며 작품 제목과 상응하는 조형적 표현으로 생각됨
-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작품보다 개선됨

<부정적 의견>

- 커다란 하나의 숲을 의도한 형상이 조형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 부결된 지난 심의와 유사한 형식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음
- 주제 전달력 및 조형성에 공감하기 어려움
- 작품 내용을 감소시키는 모호한 외부구조물 형태
- 전작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안 보임
- 보로노이 다이어그램과 같은 내부표현은 공감하지만 내부표현과 외부 틀과의 조화적 측면의 기존 부정적 의견에서 호전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시각적으로 큰 변화가 없고 다소 왜소한 느낌을 줌
- 이전 제출 작품과 유사하며 재심의 사유가 명확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그물망으로 연결된 유기적 구조의 조형물의 시각적인 흥미도는 있으나, 전작 대비 큰 변화가 없음

4-1. WALDEN

<긍정적 의견>

- 보는 이로 하여금 현대적 건물 속에서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며, 자연 풍경에 대한 안정감을 제공함
- 생동감 있는 미디어 작품임
- 외부공간과 건물 간의 조화가 유효함, 시각적으로 편안한 색감을 통한 조형 표현
- 자연의 몽환적인 분위기가 돋보이며, 새로운 가상의 세계로 이끌 수 있을 만큼의 큰 규모도 긍정적임
- 미디어를 활용한 입체적 초현실 혹은 인상주의적 기법이 흥미로움
- 몽환적인 작품 컨셉이 잘 드러남

- 도시 속 자연의 디지털화를 통한 사유와 안식의 공간 제공에 동의함
- 미디어 표현방식의 공공미술이 실내 공간과 조화롭고 시각적인 관심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됨
- 건축설계, 인테리어 팀의 사전 계획이 철저히 이루어져 건축물의 컨셉과 작품 방향 설정이 잘 된 작품으로 이상적임
- 복잡한 도심의 건물 속에서의 본 작품은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관람객들에게 평안하고 휴식적인 공간으로 느끼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됨

<부정적 의견>

- 현재 법정 가액으로 설치 가능한지 의문, 전반적으로 1차원적인 직접적 표현을 보이며, 영구 설치 시 신선한 그래픽적 형상 보완이 필요해 보임
- 미디어월의 설치는 좋으나 작품 이미지가 진부하여 추후 관리가 우려됨
- 전반적으로 1차원적인 직접적 표현으로 보임
- 빛 공해의 소지가 있음
- 서로 다른 두 명의 작가의 작품이지만 같은 공간에 자연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유사하여 장시간 설치 시 식상할 수 있음, 작업물에 따라 작가창작비 등 설치비용 사용계획서가 상이할 텐데 두 작품이 동일한 점이 의문스러움
- 평평한 면을 상정한 이미지로 직육면체 패널의 형식을 반영하지 못함

<기타 의견>

- 지속적인 관심도를 유지하기 위한 콘텐츠의 변화가 필요함
- 평면 조형물로는 신선한 소재라 주목성 및 공간 활용으로는 탁월한 듯함. 다만, 미디어 패널의 수명이 정해져 있는데, 차후 시설 유지 보수의 방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함

4-2. Generative Poetic Nature : Walder Pond

<긍정적 의견>

- 생활 속 예술의 접근성을 높이며,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예술과 기술의 접목 시도가 두드러짐
- 작품 색채가 돋보이며,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림
- 정적이면서 자연스러움
- 공간에 활력과 생기를 주는 작품
- 미디어를 활용한 입체적 초현실 혹은 인상주의적 기법이 흥미로움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감각을 제공
- 도시 속 자연의 디지털화를 통한 사유와 안식의 공간 제공에 동의함
- 미디어 표현방식의 공공미술이 실내 공간과 조화롭고 시각적인 관심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됨

- 건축설계, 인테리어 팀의 사전 계획이 철저히 이루어져 건축물의 컨셉과 작품 방향 설정이 잘 된 작품으로 이상적임
- 복잡한 도심의 건물 속에서의 본 작품은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관람객들에게 편안하고 휴식적인 공간으로 느끼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됨
- 작품의 주제 의식이 작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며 신선한 감정을 이끌어 힐링 되는 작품
- 건조한 실내환경에 자연의 이미지를 전달함

<부정적 의견>

- 전반적으로 1차원적인 직접적 표현을 보이며, 영구 설치 시 신선한 그래픽적 형상 보완이 필요해 보임
- 현재 법정 가액으로 설치 가능한지 의문
- 미디어월의 설치는 좋으나 작품 이미지가 진부하여 추후 관리가 우려됨
- 전반적으로 1차원적인 직접적 표현으로 보임
- 빛 공해의 소지도 있다고 사료됨
- 서로 다른 두 명의 작가의 작품이지만 같은 공간에 자연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유사하여 장시간 설치 시 식상할 수 있음, 작업물에 따라 작가창작비 등 설치비용 사용계획서가 상이할 텐데 두 작품이 동일한 점이 의문스러움
- 평평한 면을 상정한 이미지로 직육면체 패널의 형식을 반영하지 못함

<기타 의견>

- 지속적인 관심도를 유지하기 위한 콘텐츠의 변화가 필요함
- 평면 조형물로는 신선한 소재라 주목성 및 공간 활용으로는 탁월한 듯함. 다만, 미디어 패널의 수명이 정해져 있는데, 차후 시설 유지 보수의 방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함

5. Cloud-Lain(빛줄기)

<긍정적 의견>

- 미디어 표현방식의 작품에 대한 시각적인 관심도와 야간의 조화로움은 긍정적임
- 건축물과의 상호작용이 무난함
- 기존의 단점이 보완됨
-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으면서 미디어의 순기능인 움직이는 사유를 불러일으킴
- 부결 사유가 일부 개선됨
- 이전보다 개선됨
- 미디어 표현방식의 작품에 대한 시각적인 관심도와 야간의 조화로움은 긍정적임

<부정적 의견>

- 미디어 연출 없이 주간에 감상할 수 있는 형태상의 구성에 대해 고려해야 함(지난 지적사항)

- 작품가격 과다 측정, 장소 적합성 찾기 어려움, 조명으로 인한 시각적인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예술성 부족
- 실리콘 재질의 재료 사용은 영구성이 우려되는 작품, 태풍이나 바람의 영향을 사고의 위험 요소가 있음
- 미디어 표현의 작품성을 방해하는 딱딱한 큐브 형태
- 작품설치비 과다 책정
- 전작에서 지적된 단순한 박스(BOX) 형태의 지루한 구성의 개선이 안 보임
- 내용의 보강과 실리콘 튜브의 활용 등 보완의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고가의 작품가격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발달에 따른 뉴미디어 작품의 발달에 비추어 볼 때 NIGHT ON의 작품 내용은 여전히 진부한 측면이 있음
- 다소 현실성이 부족하고, 소도 작품과의 유사성이 있다고 사료 됨
- 지난 작품과 이미지만 다르고 미디어 활용의 방식은 비슷해 보임, 미디어 연출의 접근은 매우 근사하나, 야간에 더 적합하고 주간 활용 계획은 전이나 이번이나 대안방책이 매우 미흡해 보인다. 주간 야간 및 미디어 라인의 청소 보수 유지에 대한 더욱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cube 하단의 실리콘 튜브 재질이 영구적인 외부 조형물에 유지관리 면에서 우려됨
- 과다한 제작비와 상가 건축물의 공간에 적합하지 않은 조형물이 세워져야 할 타당성 검토 필요함, 거대한 사각 구조물이 상가 건물의 전면부를 가로막는 형상이 적절하지 않으며 과도하고 현란한 빛 공해로 공공조형물의 긍정적인 면보다 피로감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지난 지적사항 보완이 전혀 안 됨)
- 본 작품의 중요한 것은 건축에 주거하는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함. 주거지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으로 공간이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질 것이 염려됨. 또한 조형물이 건축과 같은 사각형으로 서로 겹쳐지는 형태가 아니고 곡선의 형태가 좋을 것을 보임. 빛과 소음이 적고, 조용히 주거지에 맞기도 하고 상가에도 맞는 조형물이었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
- 상가의 화려한 간판과 함께 시각적인 피로도가 예상됨,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음, 작품계획 전면 재검토 필요함
- 실리콘 튜브를 이용한 하부 구조의 관리 보존과 영구성이 의심스러움

<기타의견>

- 전작 심의 시 지적된 요소 중 사각 프레임에 대한 조형적인 요소는 개선 필요

6. Untitled

<긍정적 의견>

- 추상적 형태와 색채감이 공간에 리듬감을 부여하고, 주변 공간과 잘 어울림
- 밝고 경쾌함을 주는 이미지와 색상으로 기존의 작품에서 공간과의 부조화적인 측면을

보완한 작품

- 공간에 잘 어울리는 시인성이 좋은 작품
- 주변 공간과 잘 어울리는 작품임
- 내부 벽체에 무난히 어울림
- 작가가 오랜 시간 지켜온 작품세계를 잘 보여준 작품
- 두터운 표면 마띠에르(소재)가 주는 회화적 재미
- 이전보다 개선됨
- 기존의 설치 위치와의 부조화적인 측면의 조형물을 고려하여 보완한 작품으로 긍정적 임
- 공간과 무리 없는 조화를 이룸
- 공간과 무난하게 어울리며 자연의 소재라 시각적으로 편안한 작품
- 본 작품은 보행공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강렬한 색의 조화, 수많은 요소들의 충돌과 같은 형상들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추상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판단됨
- 공간에 어울리는 편안함을 제공하는 작품으로 적절함
- 공간에 무난하게 어울림

<부정적 의견>

- 단조로운 내부에 화려한 색채성이 가미된 평면 회화의 대비가 인상적이지만, 재료비와 액자비가 다소 고가로 책정되어 있음
- 회화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색감 및 형상이 배제된 상태인 서정적 추상의 상태로 서 미흡함

7-1. 빛나는 세상

<긍정적 의견>

- 대중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임, 기존안보다 율동적 구성으로 인한 역동성이 느껴짐
- 수정한 작품이 훨씬 어색하지 않음, 둔탁한 조형성이나 진부한 색감과 재료도 많이 개선됨, 색과 재료의 조화가 어우러짐
- 공간과 조화는 이루나 특별함이 없는 무난한 작품으로 보이는 아쉬움이 있음
- 원형의 조형성이 자연스러움
- 작품이 잘 보완되었으며, 선적인 요소와 조형적인 요소가 잘 연결되어 있음
- 전작과 비교하여 조형적으로 개선된 작품으로 설치 공간과의 조화가 무난함
-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단점을 잘 보완함

<부정적 의견>

- 형태가 다소 진부하고 다양한 재료와 색감이 단조로움, 가격 과다

- 기존 작가의 공공미술 작품과 너무 유사하여 복제품과 같은 느낌이 있으며, 개별성 측면에서도 미흡함
- 작품가 과다
- 조형성과 메시지가 다소 진부해 보임, 작품의 정체성이 모호하여 감흥 부족
- 의미구조가 부족한 이미지 단순화가 주는 단조로움
- 진부한 형식의 구성
- 이전보다 개선되었으나 조형적으로 다소 식상함
- 조형성이 다소 미흡함
- 단순하고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 조각처럼 보임
- 형태가 다소 진부하고 작품 의도와 조형성이 상이함, 작품의 재료나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작품가 과다
- 전형적으로 진부한 형태의 조형으로 예술적인 요소가 아쉬우며 장식적 구조물의 성격이 강함
- 장식성은 완화되었으나 진부한 형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7-2. 꽃구름 - 풍경

<긍정적 의견>

-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단점을 잘 보완함, 작가의 작품세계와 작가 특유의 개성적 제작기법과 인물상을 부각하여 개선된 작품
- 주거공간에 따듯함을 줄 수 있는 무난한 공공미술 작품
- 심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개선됨
- 작가 특유의 인체 표현이 강조된 작품
- 작가의 조각적 특성이 반영된 가족과 나무의 표현이 무난한 조형성으로 보임
- 전작 대비 연결성과 심플함이 강조된 유니크한 조형물이 긍정적이고 주변 공간과 무난함
- 작가 작품의 정체성이 잘 드러난 작품, 위트있는 구성이 공간의 생기를 줄 듯함
- 작품 의도가 잘 나타나며 주변 공간에 조화로운 작품으로 공공미술 작품으로 적합함
- 가족의 일상적 행복의 순간을 조형적으로 잘 표현됨, 작품을 보면 가족의 공감속으로 빠져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듦
- 심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개선됨, 작가의 작품세계가 잘 반영된 작품으로 밝은 톤의 작품이 희망적이며 공간과 조화롭게 잘 어울림

<부정적 의견>

- 조형 표현이 여전히 산만한 느낌을 주며, 주변 경관 및 건물의 느낌과도 어울리는지 의문이 듦
- 조형적으로 안정감이 부족하며 형태와 색의 조화가 산만함
- 진부한 형태와 표현으로 주변 공간에 예술적 감흥을 주지 못하는 작품임
- 표현방식이 다소 진부함
- 조형 표현이 여전히 산만한 느낌을 주며, 주변 경관 및 건물의 느낌과도 어울리는지

의문이 듦

- 작품 위치 비효율적, 유지관리가 우려됨
- 통일성이 부족한 재료기법
- 진부한 형식의 구성
- 조형적으로 다소 식상함
- 작품의 조형물이 너무 작은 요소들로 나뉘 있음.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표현된 부분들의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좀 더 크고 단축된 조형성을 표현해 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색이 너무 비슷해서 작품이 하나의 수채화처럼 느껴짐

7-3. 기억되어야 할 놀이1 - 줄다리기

<긍정적 의견>

- 시각적 즐거움이 느껴지는 작품으로 공공미술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중 친화적인 작품
- 의인화된 표현력과 우리나라 놀이문화를 실제 어린이 놀이터 근처에 위치해 장소와의 연계성에 더욱더 재미를 줌
- 의외의 공간에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곰의 모습이 반항적인 효과를 주며, 유쾌함을 불러일으킴
- 작가의 작업이 반영된 작품이며 이전 부결 작품보다 보완된 작품, 그래픽 상 이미지가 다소 강해 보이나 개인 작품에서처럼 작품을 제작한다면 무난해 보임
- 전통적인 조각 방식으로 공간의 긴장감과 대중적 재미 요소를 이끌어냄
- 작품의 조형 언어가 직접적이기는 하나 어린이 놀이터 주변 설치 공간과 조화가 무난함
- 설치되는 공간이 놀이터 주변이라 작품의 이미지와 조화로움
- 작가의 개성을 담은 독특한 캐릭터 작품, 작품가액 대비 대규모의 소조기법 중 브론즈의 전통조각기법으로 현대적인 유머와 위트를 접목한 흥미로운 작품, 넓은 녹지 위에 적절하게 어울리며 시각적으로 활력을 줄 수 있는 작품
- 작가의 기존 작품 경향으로 곰돌이를 통해 현대인들의 추억을 회상하게 하는 작품 각박한 마음에 위안을 주는 작품

<부정적 의견>

- 시각적으로 다양한 구성력이 부족해 보이며 장소와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
- 독창성 부족
- 진부한 형태와 표현으로 주변 공간에 예술적 감흥을 주지 못하는 작품임
- 줄다리기의 흥겨움을 선사하지 못함
- 반달곰의 놀이라는 작품의 의도와 어린이 놀이터라는 공간과의 조화는 긍정적이나 작품의 표현방식이 아쉬운 작품
- 어색한 구성과 표현
- 조형적으로 다소 식상함

- 반달곰을 활용한 작가의 조각적 특성은 이해하지만 근래의 화려한 놀이터와는 다소 유리되어있는 듯한 색감과 지나치게 놀이의 특성이 반영된 형상성으로 예술성이 반감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설치되는 장소 맞춤형 작품이라고 하지만 커다란 반달곰의 두 무리가 주는 느낌은 조금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듦. 줄의 형상에 아이들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까 염려가 됨

7-4. 기억되어야 할 놀이2 - 줄넘기

<긍정적 의견>

- 의외의 공간에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곰의 모습이 반향적인 효과를 주며, 유쾌함을 불러일으킴
- 전작에 비해 놀이터란 공간에 잘 어우러짐, 진부한 조형 언어는 아쉬우나 동심이 느껴져 아이들에게 따뜻한 분위기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됨
- 가격 적정, 작가의 작이 반영된 작품
- 작품의 조형 언어가 직접적이기는 하나 어린이 놀이터 주변 설치 공간과 조화가 무난함
- 의인화된 표현력과 우리나라 놀이문화를 실제 어린이 놀이터 근처에 위치해 장소와의 연계성에 더욱더 재미를 주는 듯함
- 설치되는 공간이 놀이터 주변이라 작품의 이미지와 조화로움
- 작가의 개성을 담은 독특한 캐릭터 작품으로 어린이 놀이터 주변 설치 공간과 자연스럽게 조화가 어우러지며 힐링하고 추억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공간이 됨
- 작가의 기존 작품 경향으로 곰돌이를 통해 현대인들의 추억을 회상하게 하는 작품 각박한 마음에 위안을 주는 작품

<부정적 의견>

- 진부한 형태와 표현으로 주변 공간에 예술적 감흥을 주지 못하는 작품임
- 줄넘기를 위한 세 조형물의 매스가 다소 큼
- 반달곰의 놀이라는 작품의 의도와 어린이 놀이터라는 공간과의 조화는 긍정적이나 작품의 표현방식이 아쉬운 작품
- 독창성 부족
- 작가의 특성이 반영된 측면은 이해하지만, 형태의 변화가 필요해 보임
- 긴장감이 부족한 구성 및 표현
- 어색한 구성과 표현
- 조형적으로 다소 식상함
- 반달곰을 활용한 작가의 조각적 특성은 이해하지만 근래의 화려한 놀이터와는 다소 유리되어 있는 듯한 색감과 지나치게 놀이의 특성이 반영된 형상성으로 예술성이 반감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 놀이를 잘 형상화하였으나 조각의 구성과 동세, 그리고 관람자가 작품에 쉽게 접근이

- 가능하기때문에 경관과 조화는 물론이고 안전성까지 고려해야 함
- 다른 형태의 조형물도 많은데 본 작품의 반달곰은 크고 동화 같지 않아서 위압감이 느껴짐. 줄의 형상에 아이들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까 염려가 됨

<심의결과 집계 및 결과발표>

위원장 : 오늘 일반안전 12개 작품 중 1-1, 1-2, 3, 4-1, 4-2, 6, 7-2, 7-3, 7-4번 작품이 승인, 나머지 2, 5, 7-1번 작품은 부결되었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결과에 이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2년 제1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승인된 작품은 시민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